



이하나(계명대)

1. 서론

전도서와 장자(莊子)는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두 문화권에 서 만들어진 문헌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을 읽다 보면 비록 피상적인 차원이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유사점들이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

1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이하나, "전도서 해석을 위한 전도서와 장자의 인간이해 비교",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 본 논문에서 '장자'는 중국 고대 도가 철학자 장자(莊子)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엮은 문헌의 서명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 문헌의 저자를 가리킨다. 인용된 장자 본문 모든 편명은 장자의 원류라고 알려진 「내편」에 한정됨을 밝힌다. 장자 본문 인용 시 「편명, 단락 번호」(괄호 안 출처 표시의 경우 꺾쇠표 생략)의 형식으로 그 출처를 밝히겠다. 단락 번호의 구분은 안동림 역주, 「장자」(서울: 현암사, 2013)을 따른다.

고자 하는 본문들(전 7:15-18, 양생주, 1-2)이 그중 하나다. 전도서는 “지나치게 의인, 지혜자, 악인,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전 7:16-17)”³고 경고하는 한편, 장자는 “선을 해도 명예를 얻기까지 하지 말고, 악을 행해도 형벌받기까지 하지 말라(양생주, 2)”⁴고 경고한다.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만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인류 보편적 지혜가 시공을 초월한 전혀 다른 문헌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자라면, 이러한 공통점은 장자의 언어로 전도서를, 전도서의 언어로 장자를 해석하는 흥미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서양 연구자들의 시각과 해석 방법으로 읽어왔다. 하지만 도가(道家) 철학자 장자의 언어와 독법으로 전도서를 읽는다면 색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교훈처럼(전 1:9) 이러한 시도는 이미 여러 선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었다.⁶ 특별히 본 연구에서 다룬 전도서 7장 15-18절 본문에 대하여는 서명수가 유가(儒家)의 ‘중용(中庸)’ 개념과 비교하여 해석한

바 있다. 서명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전도서 편찬 시기가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가치관과의 충돌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대 배경이 전도서가 ‘중용적 지혜’를 채택한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5-18절을 ‘중용’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주류 정통 신학 틀 속에서 전도서가 말하는 중도의 의미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제시하였다.⁷ 본 연구는 유가가 아닌 도가(道家)의 시각으로 본문을 읽는다는 점에서 서명수의 것과 구별된다 하겠다.⁸

본 연구는 전혀 다른 문헌 속 비슷한 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공통점을 근거로 새로운 읽기 즉, 장자의 언어로 전도서를 해석하는 시도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장자「양생주, 1-2」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안경 삼아 전도서 7장 15-18절을 새롭게 해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도서의 도가적 이해’라는 새로운 시각을 발굴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본문의 의미에 풍성함을 더해 보고자 한다.

2. 「양생주, 1-2」의 의미

1) 장자의 ‘삶’

장자의 첫 번째 편인 「소요유(逍遙遊)」편은 인간의 ‘삶’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삶에 이르지 못함을 가리키는 ‘우언(寓言)’으로 시작한다. 장자의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첫 번째에서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삶’의 문제가 장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알려준다.

3 본 논문의 전도서와 장자 인용문은 모두 저자의 사역이다.

4 爲善无近名 爲惡无近刑.

5 김흥영, “아시아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종교와 과학간의 대화: 신학, 동양종교, 자연과학의 삼중적 대화에 대한 제안”, 『신학사상』 Vol. 135 (2006), 129-132. 김흥영은 아시아의 다종교적 문화 배경에서 기독교라는 서구 종교와 동양 종교 간의 효과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두 단계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먼저는 ‘서술-비교적(descriptive-comparative) 단계’이고 다음은 ‘규범-구성적(normative-constructive) 단계’이다. 서술-비교적 단계는 19세기 서구 기독교의 오리엔탈리즘적 강압적이고 무례한 선교 방식을 지양하면서 상대방의 견해와 기본적 전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규범-구성적 단계에서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자유롭게 신학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각 경전의 의미를 훑어보고 비교하되 어떤 것에 특별한 가치 평가를 두지 않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김흥영이 제안한 ‘서술-비교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발전한다면 ‘장자적 신학’ 혹은 ‘도가적 신학’ 등 특별한 신학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본 연구에서 관심하는 바는 아니다.

6 수기타라야의 탈식민주의적 성서 비평, 유영모의 신학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R. S. Sugirtharajah, “탈식민주의적 성서 비평의 구도 (원제: Plotting Postcolonial Biblical Criticism)”, (김재성 옮김), 『신학사상』 Vol. 95 (1996), 66. 수기타라야 등의 탈식민주의적 성서 해석의 연구자들은 기독교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폭력성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자국 종교 배경에서 성서를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김진희, “동양사상의 우주론에 입각한 유영모의 신학”, 『신학사상』 Vol. 131 (2005), 161-200. 또한 다석 유영모(多夕 柳永模)는 다종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기독교 신학을 유교, 불교, 도가 철학 등 동양 사상과 접목시켜 한국만의 독특한 신학을 성립하였다.

7 서명수, “중용의 관점에서 본 전도서의 ‘새로운 지혜’”, 『구약논단』 Vol. 19 No. 1 (2013), 183-206.

8 서명수의 연구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본문에 소개하였다. 동양 사상의 언어로 성서를 해석하는 해석 방법론의 근거가 된 연구는 이치창(李炅昌)의 ‘교차-텍스트 해석(跨文本詮釋, Cross-Textual Hermeneutics)’ 방법이 가장 주요하다. 이는 귀의자의 경전과 종교 정신, 문화적 가치를 진실하게 대우하고, 귀의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신성한 활동을 성경의 증거 위에 재통합시키는 방법론이다. 李炅昌, 『跨越文化边界之经典诠释』, 『圣经文学研究』第7輯 (2013), 138-139. 그리고 동서문학 비교 방법론은 박정세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연구』 (서울: 도서출판 글터, 1997). 박정세는 이 책에서 성서에 등장하는 설화와 공유하는 주제를 가진 한국 민담과 더불어 제3의 국가의 민담을 나란히 읽으면서, 이를 통해 각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낸다.

「소요유」편은⁹ 큰 물고기 ‘곤(鯨)’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큰 물고기는 변화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은 ‘봉(鵬)’이라 하였다. 이것은 등 길이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다. 힘차게 펼쳐 날아오르면 날개가 구름처럼 보일 만큼 높이 오르고, 바다가 움직이면 그 기운으로 남쪽 깊은 바다인 ‘하늘 못(天池)’을 향해 먼 비행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웅대한 장면을 본 매미와 비둘기는 오히려 터무니없는 공연한 짓이라 말하며 비웃는다.

매미와 비둘기가 함께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는 힘껏 날아 느릅나무나 다목나무에 이르는데 어떤 때는 거기에 못 미쳐 땅에 떨어진다. 어째서 그것은 구만리 남쪽으로 가는가?” 「소요유, 5」¹⁰

매미와 비둘기의 모습을 두고 장자는 ‘작은 앎이 큰 앎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가까운 숲으로 놀러 가는 사람은 하루 세 끼 먹고 돌아와도 배부르다. ...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이 두 미물이 어찌 알겠는가. ‘작은 앎’이 ‘큰 앎’에 미치지 못하고(小知不及大知) 짧은 삶이 긴 삶을 헤아릴 수 없다. 「소요유, 5」¹¹

땅에 붙어사는 매미와 비둘기의 앎이 바로 ‘작은 앎(소지/小知)’다. 그들의 비행 실력은 겨우 느릅나무나 다목나무에 옮겨 다니는 데 그치며, 눈에 보이는 작은 숲이 그들 세계의 전부일 뿐이다. 매미와 비둘기가 ‘봉’의 비상(飛上)을 비

웃은 이유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떨어지지 않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고, 죽음을 면할 정도의 이슬과 벌레를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실 이것은 매미와 비둘기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삶의 자세일 수 있다. 장자는 매미와 비둘기처럼 인식과 경험의 한계로 인해 한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적인 앎을 ‘작은 앎’이라 하였다.

한편, ‘봉’처럼 높고 멀리 날아간다는 것은 미물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앎을 가리킨다. 이를 장자는 ‘큰 앎(대지/大知)’이라 하였다. 이것은 삶의 한계를 가진 존재가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앎’을 가리킨다 하겠다. 장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작은 앎’이 ‘큰 앎’에 닿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존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장자는 주어진 한계를 초월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장자는 ‘곤’이 ‘봉’으로 변하여 비행하는 장면을 통해 인간이 한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와 초월에 이를 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는데,¹²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은 ‘큰 앎’에 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구성되는 ‘작은 앎’을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대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장자는 이처럼 ‘작은 앎’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사물과 사태를 판단하는 마음, 사람들의 가치판단 중심을 ‘성심(成心)’¹³이라 하였다.

9 「소요유」편은 장자 내편의 첫째 편으로, 장자 전체의 궁극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소요유」편의 주지(主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나 주로 ‘정신적 자유의 경지’로 이해되고 있다. 이택용, “장자 소요유의 주지 및 철학사적 함의 고찰”, 『동양철학연구』 Vol. 76 (2013), 242.

10 螾與鴝鳩笑之曰 我決起而飛 檜榆枋 時則不至 而控於地而已矣 奚以之九萬里而南爲.

11 適莽蒼者三澮而反 腹猶果然 ... 適千里者三月聚糧 之二蟲又何知 小知不及大知 小年不及大年.

12 ‘곤’이 ‘봉’으로 변화하는 이야기 속의 ‘곤’은 현실에 얽매인 인간 실존을 상징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우연속 매미와 비둘기에 대응한다. 따라서 ‘곤’이 ‘봉’으로 변화하는 이야기는 ‘작은 앎’에 얽매인 존재가 ‘큰 앎’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 정용선, 『장자, 위대한 우화』 (서울: 인간의 기쁨, 2016), 22-27; 오강남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2009), 26-27.

13 ‘성심(成心)’ 긍정적 마음의 기능으로 해석하는 이들과 부정적 기능으로 해석하는 이들로 나뉜다. 즉, ‘성심’을 인간 본연의 ‘참된 마음’, ‘자연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반대로 굳어진 마음이요 사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편견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성심’에 대해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성심’의 부정적인 해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종성, “장자 철학에서 성심에 대한 성찰”, 『대동철학』 Vol. 23 (2003), 1-26을 참고하라. 오강남은 ‘성심’에 대해 ‘굳은 마음’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사비를 따지는 것은 틀에 박혀 유연성이 없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강남, 앞글, 77.

무릇 성심을 따라 그것을 스승으로 삼으면 스승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찌 교대로 일어나는 생각을 스스로 취하는 자만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 또한 있다. 아직 구성된 마음이 없는데 시비가 있다고 함은, 오늘 월나라로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지않은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제물론, 8」¹⁴

‘성심’은 인간의 한계적 삶을 통해 구성된 ‘한계적인 앎’ 즉, ‘작은 앎’이 축적되어 고착화된 견해를 말한다. 즉, 자신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태를 지각함으로써 생긴 주관적인 앎을 절대화하여 모든 사물과 사태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의견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각자의 ‘성심’을 기준으로 사태의 호오(好惡)를 구별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거부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시비를 판단하게 된다.¹⁵

그러나 장자는 나 자신의 ‘작은 앎’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심’ 없이 시비의 집착에서 벗어나 우주 존재의 실상을 파악할 안목을 체득한다면 ‘큰 앎’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장자는 이러한 경지를 ‘도(道)’라 하였다. 따라서 ‘도’는 사물의 경계가 없는 앎 즉, ‘큰 앎’을 말한다. 장자는 ‘성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사물과 사태의 시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의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2) 「양생주」의 앎

「양생주」편은 장자 「내편」의 일곱 개의 편 중 셋째 편이다. 첫째 편인 「소요유」편은 변화와 초월의 가능성을 주제로 하여 인간이 ‘한계적 앎’에서 벗어나 ‘큰 앎’에 닿을 수 있음을, 둘째 편인 「제물론」편은 그 한계 없는 ‘큰 앎’이 ‘제물

14 夫隨其成心而師之誰獨且無師乎 奚必知代而心自取者有之 愚者與有焉 未成乎心而有是非 是今日適越而昔至也 是以無有爲有 無有爲有.

15 이진용은 장자가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호오(好惡)의 감정 자체가 아니라 이를 수용, 거부함으로써 생겨난 신념이 다시 감정에 적용되어 사물이나 사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진용, “장자의 감정과 공간의 문제-무정(無情)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Vol. 46 (2015), 52-53.

(齊物)적 사고(내가 나를 잃어버려 주관적인 앎으로 구성된 성심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사고)’에서 가능성을 논한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양생주」편은 ‘제물(齊物)적 사고’를 바탕으로 ‘양생(養生)’하는 것을 그 주제로 한다.¹⁶

‘양생’의 의미에 대한 주장은 크게 ‘보신(保身: 육체적 생명을 보존함)’과 ‘양신(養神: 삶의 우환이 있음에도 정신적 활기를 잃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 ‘보신’의 의미로서 ‘양생’은 육체적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양신’의 의미로서 ‘양생’은 정신적 활력을 북돋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¹⁷ 그러나 장자 「내편」 전체에서 볼 때, 육체의 손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충만한 덕의 표지로 내세울 뿐 아니라¹⁸, ‘안명(安命)’¹⁹하여 천수를 누리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장자가 말하는 생명이란 육신과 정신의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할 수 있다. 안동림은 ‘양생주’를 ‘참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풀이했는데²⁰ 앞서 논의한 모든 것을 잘 요약하는 풀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 앎에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그런데도 앎을 이루려 한다면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해도 명예를 얻기까지 하지 말고, 악을 행해도 형벌받기까지 하지 말라. 오직 덕을 따라(緣督, 연독)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그러면 몸을 보전할 수 있고, 삶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어버이를 섬길 수 있고, 주어진 나이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양생주, 1-2」²¹

16 양생주는 1) ‘양생의 요결’로 풀 수도 있고, 2) ‘생명의 주인을 북돋는다(生主를 養함)’로 풀 수도 있다. 안동림, 윗 글, 139-140.

17 이택용, “장자 철학에서 「양생주」 함의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Vol. 79 (2014), 62-65.

18 「덕충부(德充符)」의 요지이다.

19 안명(安命)이란 명(命)을 결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관성으로 이해하여 그 상관성 속에 자신을 편안히 맡기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체념적으로 인주하는 숙명(宿命)과 다르다. 정병석,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죽음관”, 「동양철학연구」, Vol. 55 (2008), 67-68.

20 안동림, 윗 글, 89.

21 吾生也有涯 而知也无涯 以有涯隨无涯 殆已 已而爲知者 殆而已矣 爲善无近名 爲惡无近刑 緣督以爲經 可以保身

위의 인용문은 「양생주」편의 첫째 이야기로 앎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양생’ 즉, 참된 인생을 보내는 방법과 ‘앎’의 문제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²²

장자는 ‘양생’을 논하는 편의 첫머리에서 인간이 한계 있는 존재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앎’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는 앎’이란 존재의 실상에 대한 앎²³을 의미한다. 장자는 끝이 있는 인간의 삶으로 이 같은 존재의 실상에 대한 앎, 끝이 없는 앎, 한계가 없는 앎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롭다 하였다. 즉, ‘성심’에서 비롯한 한계적인 앎으로 존재의 실상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왜인가? 인간의 감각과 인식의 본래적 한계로 인해 구성되는 ‘성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필연적으로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앎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시비를 분별하는 ‘성심’으로써 세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위태로운 것이다. 그런데도 ‘성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물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앎’이 한계가 있다는 자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양생’, 참된 인생을 보내는 태도이다.

이어서 ‘앎’에의 겸손한 태도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명예를 얻을 정도로 하지 말고, 악행을 하더라도 형벌을 받을 정도로 하지 말라.” 이것을 앞서 언급한 ‘성심’과 연결해 생각한다면,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사로잡혀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두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선과 악에 대한 생각도 한계가 있는 앎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절대화하여 시비의 양극단으로 치우쳐 행동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나의 기준을 절대화하여 그것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모두 악이며 옳지 않다고 여기는 식의 행동이다. 만

可以全生 可以養親 可以盡年.

22 정용선, 뒷글, 176.

23 뒷글.

24 뒷글, 177.

일 ‘성심’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는 판단 행동을 중지한다면 선악과 같은 이분법적 판단에서 초월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따로 없게 된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일도, 그것으로 명예를 얻는 일도, 악을 행하는 일도, 그것으로 형벌을 받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지 말고 악한 행동도 적당히 하라는 윤리 지침이 아니다. ‘한계 없는 앎’의 경지를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도’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장자는 이를 ‘독을 따라(緣督, 연독)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연독(緣督)의 의미

‘연독(緣督)’은 ‘독(督)을 따른다(緣)’고 풀 수 있다. 오강남은 ‘독’이 대개 세 가지 의미로 풀이된다고 하였다.²⁵ 첫째로는 ‘감독(監督)’의 의미이다. 둘째로는 ‘독맥(督脈)’이다. ‘독맥’은 한의학에서 등의 중앙을 상하로 뻗은 혈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척수신경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체에 흐르는 기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명의 활력에 핵심이 된다.²⁶ 셋째로 옷의 등판 한가운데를 세로로 누빈 자국이라고도 한다. 첫째의 뜻으로 새긴다면 ‘연독’은 하늘의 명령을 따르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명(命)’을 따르는 것으로, ‘인위(人爲)’를 배제하고(無爲) ‘자연(自然)’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둘째 뜻으로 새긴다면 근원적인 생명력을 따르라는 의미가 되겠다. 이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명’에 순응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몸의 중앙을 지난다는 의미에서 셋째의 뜻과도 통한다. 안동림은 ‘독’에 대해 둘째와 셋째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들 모두가 ‘가운데’라는 뜻으로 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독’은 ‘중정(中正)’, ‘중용(中庸)’의 의미라 하였다.²⁷ 여기서 ‘가운데’는 도덕적 올바름이나 기계적 중립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즉,

25 오강남, 뒷글, 145.

26 정병현, “장자 <양생주>의 양생사상 고찰- 포정해우에 대한 도교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Vol. 82 (2015), 136.

27 안동림, 뒷글, 92.

선이든 악이든 한쪽에 치우쳐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태도이며, '무위'하여 '자연'한 상태를 말한다.²⁸ '독'에 대한 세 가지 의미인 '감독', '독맥', '가운데'를 모두 채택하여 해석한다면 '연독'이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거기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 정용선은 '독'을 '중(中)'으로 읽었는데, 이것은 중립적인 마음, 선악이나 시비를 잊은 마음, 어떤 가치나 욕망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 나의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상황의 마땅한 필요에 응하는 마음이다.³⁰ 장자는 이처럼 '연독'하면 몸을 지킬 수 있고(保身, 보신),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全生, 전생), 부모를 봉양할 수 있고(養親, 양친),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된다(盡年, 진년)고 말한다. 그야말로 '양생'의 결과이다.

'독'이 '가운데' 혹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자의 '중용(中庸)'의 개념과 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유가에서 말하는 '중용'과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다. '유가'에서 '중'은 '위아(爲我)'와 '위인(爲人)'의 양극단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시킨 상태이다. 따라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양극단의 무게에 따라 움직이는 유동적인 것이다.³¹ 즉, 이것은 기계적인 '가운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동하는 균형점으로서의 '가운데'라는 점에서 '중용'은 '연독'과 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유가에서 '중도(中道)'를 실현하는 목적이 '연독'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다. 유가에서 '중도'의 실현은 자기완성(수기, 修己)과 사회적 질서를 구현(치인, 治人)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³² 공자는 “예의 쓸모 중에 조화가 가장 귀하다”³³라고 하였다. 즉, 유가의 '중용'은 그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인위(人爲)'가 필수적이다. 반면, '연독'의 목적은 '양생'에 있다. 앞서 밝혔듯이 '양생'은 자연 그

28 정병현, *윳글*, 137.

29 오강남, *윳글*, 145.

30 정용선, *윳글*, 178.

31 신윤구, “孔子的 中庸思想에 대한 研究”, 『동서철학연구』 Vol. 33 (2004), 213.

32 윳글, 213.

33 禮之用和爲貴. 논어(論語) 「학이(學而)」, 12」

대로의 본성을 지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무위'하고 '자연'해야 한다. 따라서 '중용'과 '연독'이 추구하는 것이 '중도'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용'은 이를 위해 무언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유위, 有爲), '연독'은 인위를 버릴 것(무위, 無爲)을 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3. 「양생주, 1-2」로 읽는 전도서 7장 15-18절

1) 전도서 본문의 의미구조

15 내 덧없는 날에 내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a)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b)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16 (a)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b) 어찌하여 스스로 마음을 황폐하게 하겠느냐. 17 (a)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b) 어찌하여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8 너는 '(a) 이것'도 잡으며 '(b) 저것'에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³⁴이다. (전 7:15-18)

본문은 전통적인 지혜 전승에서 주장하는 바,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망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대한 코헬렛³⁵의 관찰과 이에 대

34 '행하는 사람'으로 번역한 단어는 *עושה* ('에체')로, 이 단어의 번역은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 첫째, '벗어나다/모면하다', 둘째, '바로 행동하다/의무를 수행하다'이다. 전자로 번역할 때 황폐와 단명을 모면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전도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 인식(인과응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당하지 않다. 후자의 번역을 채택한 학자는 다음과 같다: H. 링그렌/W. 침머리, 『잠언/전도서』 (박영옥 옮김), (국제성서주석 18;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28-329. 원저 Helmer Ringgren/Walther Zimmerli, *Sprüche/Prediger*, (Vandenhoeck & Ruprecht, 1980); Robert Gordis, *Koheleth: The Man and His World -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Books, 1971), 277-278; Michael V. Fox, *Qoheleth and His Contradictions* (Sheffield: Almond 1985), 236.

35 코헬렛은 전도서의 화자로 등장하는 히브리어 *קוֹהֵלֶת* (코헬렛)을 음역한 것이다.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회중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ἐκκλησιαστής* (에클레시아스테스)로,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 'Concionator(꾼치오 나뜨르/연사)'로 번역했다. 이후에 루터가 이것을 'Prediger(설교자)'라고 번역하여 이로부터 '설교자', '전도자'라는 명칭이 시작되었다. 통상적인 영어 번역들 또한 코헬렛을 'Preacher(설교자)'로,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전

한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절은 전통적인 지혜 인식에서 목적하는 바가 현실에서 성취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코헬렛의 관찰이다. 이어서 등장하는 16절은 지나치게 '의인/지혜자'가 되지 말 것을, 17절은 지나치게 '악인/우매자'가 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내용상 16절은 15절(a)의 내용에 대한 대구(對句)이고, 17절은 15절(b)의 내용에 대한 대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8절은 본문의 결론을 지으며 '(a)이것'과 '(b)저것'을 모두 행할 것을 권면한다. 여기서 '(a)이것'은 16절(a)를, '(b)저것'은 17절(a)를 가리킨다. 이상의 내용을 이어지는 논의를 위해 본문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절	코헬렛의 관찰 관찰1 관찰2	내 덧없는 날에 내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a)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b)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16절	교훈1: 15절(a)의 대구	(a)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b)어찌하여 스스로 마음을 황폐하게 하겠느냐.
		(a)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b)어찌하여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7절	교훈2: 15절(b)의 대구	너는 '(a)이것 [=16(a)]'도 잡으며 '(b)저것 [=17(a)]'에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 [18(a)+18(b)]'을 행하는 사람이다.

2) 하나님의 섭리와 한계 없는 삶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지혜'³⁶는 인간의 삶에 좋은 것들을 보증해 주는 유익한 것이다.³⁷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지혜를 소유한 사람

도자로, 공동번역에서는 '설교자'로 번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헬렛에 대한 다양한 번역을 모두 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기로 한다.

36 성경에서 지혜라는 용어는 생활의 지혜만 뜻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형태로서의 지혜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지식, 기술, 교육철학이나 기조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Melanie Köhlmoos, "Weisheit/Weisheitsliteratur II", TRE 35(2003), 486. 오민수, "전도서 10장 1절 이해와 그 현대적 교훈: 위기 사회와 지혜", 『구약논단』 Vol. 23 No. 1 (2017), 75. 에서 재인용.

37 제임스 L. 크렌쇼,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84-185. 원제 James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코헬렛 또한 지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동의하는 것 같다. 전도서는 지혜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전 2:13-14a), 지혜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고(전 2:26), 유산같이 아름다우며(전 7:11), 돈보다 유익하다(전 7:12)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도서 7장 15절과 같이 전통적인 지혜 인식으로 약속된 '의인의 행통', '악인의 패망'이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의식도 등장한다. 그는 '의인의 멸망'과 '악인의 행통'과 같은 반(反)인과응보적인 현실을 관찰하였고, 그것이 실재함을 고발함으로써 전통적인 지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스스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진리의 오류를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전도서는 하나님 신앙의 경전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코헬렛이 신앙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은 절대적이며 불변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진리와 현실이 불일치할 때, 그것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적인 섭리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코헬렛의 태도는 전도서 3장 1-11절에서 볼 수 있다.

- 1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 2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 3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 헐 때와 세울 때
- 4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 5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
- 6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 7 찢을 때와 꿰매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 8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
- 9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인해 무슨 이익이 있는가? 10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사람

의 아들들에게 애쓰도록 주신 노고와 11 그가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신 모든 것, 또 그들의 마음에 영원을 주셨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발견할 수 없게 하셨다. (전 3:1-11)³⁸

위의 인용문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마땅하고 선한 것임을 노래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하시는지 그 일의 시작과 끝은 인간이 알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것은 인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과 믿고 있는 진리가 불일치할 때 이것은 진리의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과 진리의 불일치에 대한 이와 같은 전도서의 태도는 「양생주」편의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 삶에는 끝이 없다”³⁹ 함과 같다. 코헬렛이 경험한 전통적인 지혜 인식의 한계 즉, 의인이 행통하고 악인이 망한다는 지식은 장자가 말한 ‘작은 앎’이라고 읽을 수 있다. 코헬렛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에 대한 인식 즉, 인과응보적 지혜 인식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반인과응보적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지식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전통적 지혜 인식의 한계를 경험한 것이다. 이처럼 한계가 있는 앎은 장자에 비추어 볼 때 ‘작은 앎’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코헬렛이 관찰한 불합리한 현실, 시종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장자의 ‘한계 없는 앎’으로 읽을 수 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코헬렛이 전통적인 지혜 인식과 상충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은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초월한 현실이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즉,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38 히브리 성서에는 2-8절이 시문(詩文)의 형식으로, 1절과 9-11절은 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그 형식을 살려 수록하였다.

39 浬生也有涯 而知也无涯. 「양생주, 1」

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장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한계적인 앎을 초월한 앎, 한계 없는 앎이라 할 수 있다.

3) 인간의 절대화와 성심(成心)

전도서 7장 15절에 이어서 따라 나오는 16절과 17절의 교훈은 지혜 전통에 부합하지 않은 것일 뿐더러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보인다. 얼핏 보면 좋은 일도 적당하게 하고 나쁜 일도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과연 이러한 비윤리적 삶의 태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

머피(Roland E. Murphy)는 16절(a)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의’와 ‘지혜’가 히트파엘(Hithpael) 형으로 되어있음에서 발견하였다. 그는 이를 근거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위선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참된 ‘덕’이나 ‘의로움’의 의미에서가 아닌,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위선적인 자부심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다.⁴⁰ 한편 17절(a)에 대해서는 이 구절이 의로움과 지혜의 추구가 인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악과 어리석음 또한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⁴¹

폭스(Michael V. Fox)는 16절(a)에 대한 머피의 의견을 지적하면서, 의와 지혜의 히트파엘형이 더 많은 예에서 단순히 ‘지혜롭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폭스는 본문의 의미가 어떤 사람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지혜가 아닐 수 있으므로 독선적인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⁴² 그리고 17절(a)에 대해서는 인간이 완벽하게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큰

40 롤랜드 E. 머피, 「전도서」(김귀탁 옮김), (WBC 성경주석 23A: 서울: 솔로몬, 2008), 225-228. 원저 Roland E. Murphy, *Ecclesiastes* (WBC 23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2). 이와 같이 위선적인 지혜에 대한 경고는 다른 지혜문학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집 7:5; 잠 3:7; 26:12 등).

41 윗글, 227.

42 Michael V. Fox, 윗글, 235.

최악은 피하라는 경계라고 주장한다.⁴³

머피와 폭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견해이다. 하지만 16절(a)와 17절(a)가 형식적인 대구리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에 대한 머피와 폭스의 해석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명수와 민영진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충고에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이것을 16절(a)에 적용할 때는 어색함이 없지만, 17절(a)에도 적용한다면 ‘악’과 ‘우매함’도 적당한 선에서는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어색한 해석이 된다.

흥미롭게도 장자는 본문과 매우 유사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선을 해도 명예를 얻기까지 하지 말고, 악을 행해도 형벌받기까지 하지 말라(양생주, 2).” 우리는 여기서 전도서 7장 16절(a)와 17절(a)의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 보려고 한다. ‘성심’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장자의 이 문장이 ‘성심’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아 치우친 판단을 하지 말고 그것에서 초월하라는 교훈임을 밝혔다. 전도서의 ‘지나치게 ~가 되지 말라’는 교훈 또한 장자가 말한 ‘선인’, ‘의인’, ‘악인’, ‘우매한 자’에 대한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라는 교훈으로 해석할 수 없을까?

이를 위해 ‘지나친 의인/지혜자’가 되려는 사람의 의지가 왜 ‘성심’이 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전도서 7장 16-17절의 ‘지나친’의 의미는 7장 18절 이후에 등장하는 교훈 속에서 알 수 있다.

20아! 참으로 선을 행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면서 스스로 내가 지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지혜는 나에게서 아주 멀리 있구나. 24 이루어진 모든 것은 멀고도 매우 깊다. 누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 (전 7:20, 23-24)

43 윗글.

44 서명수, 윗글, 199; 민영진, 「전도서/아가」(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63.

전도서 7장 20, 23-24절에서 코헬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지혜커녕 그것에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말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16절(a)를 본다면,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 즉, 완전한 의인과 지혜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겠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7장 16절에서 의와 지혜의 ‘지나친’ 추구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근거를 전통적인 지혜 전승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지혜 전승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잠 8:13; 9:10; 14:2; 15:33).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을 수행하는 것 즉, 올바른 윤리적 행위와 연결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혜는 그것을 얻은 사람의 장수와 부귀 및 미래의 재앙에서도 벗어나는 형통한 삶을 약속한다(잠 3:15-18; 14:27; 22:4). 이러한 배경 속에서 16절(a)를 본다면,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가 되려는 동기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완벽한 율법의 수행을 통해 완전한 의인과 지혜자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형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삶을 좌우지하려는 신적 욕망이고,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두려는 신성모독적인 것이므로 코헬렛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코헬렛에게 ‘지나친(완벽한) 의인/지혜자’가 되려는 욕구는 한 개인이 그 가치를 절대화하여 집착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성심’이라 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것이다. 심지어 코헬렛이 관찰한 바로는, 인간은 완전한 의와 지혜를 얻을 수 없고(전 7:20, 23-24),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의 목적 또한 성취되지 않는다(전 7:15). 따라서 ‘지나치게 의인/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코헬렛의 충고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완전한 의와 지혜에 도달하여 결과적으로 형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과 자만심 즉,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간의 절대화’에 대한 경계이다.⁴⁵

그렇다면 ‘지나친 악인/우매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성심’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17절(a)는 16절(a)와 정반대의 사람을 설정하고 있다. 16절(a)가 하나님 신앙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에 대한 경고라면, 17절(a)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단순히 심각한 악과 우매함을 행하는 사람임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악하고 방종하게 살아간다는 점에서 16절(a)와는 또 다른 신성모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경험(전 8:11)을 자신의 절대적인 ‘성심’으로 삼아, 이를 근거로 자신의 악한 행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16절(a)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심판자 위치에 두는 신성모독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시험하며 하나님과 힘겨루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악인/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는 충고는 16절(a)와 같은 의미로 ‘인간의 절대화’를 경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6절(a)와 17절(a)를 장자의 ‘성심’의 개념을 통해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의미와는 다른 새롭고 조금 더 통일성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즉, 지나친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라는 ‘한계적인 앎’으로 ‘인생의 형통’이라는 하나님 영역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나친 악과 우매 또한 죄에 대한 징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적인 앎’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설

45 윌리엄 P. 브라운, 「전도서」(채은하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144. 원저 William P. Brown, *Ecclesiaste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브라운은 이 구절이 지나친 의로움이 최고의 것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의와 번영 간의 인과관계를 반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절대화’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코렐렛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절대화’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심판과 위태로움(危殆)

전도서 7장 16절(b)는 완전한 의인과 지혜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결국 크게 실망함으로 마음이 황폐하게 된다고 하였다. 개역한글 성경에서 ‘스스로 패망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מִשְׁמָוֹת (밋쇼뎀)은 ‘황폐하게 되다’, ‘파괴되다’의 의미를 갖는 어근 שָׁמַו (샤뎀)의 히트파엘 형이다. 개역개정, NRSV, NIV, NAB 등의 현대 역본은, 이것을 ‘패망’ 혹은 ‘파멸’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재산상의 손실이나 건강의 악화 등 실제로 망한 것을 상상하게 하는 단어다. 한편, 70인 역, 시리아 역, 체롬은 ‘마비되다’ 혹은 ‘충격을 받다’로 번역하고, NJV와 폭스는 ‘아연실색하게 하다’로 번역한다.⁴⁶ 이것들은 단지 정신적인 황폐함을 지적한다. 16절(a)의 충고가 의와 지혜의 위선적인 자부심이나, 독선적인 주장을 경계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은 이웃에게 배척을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 실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패망’이나 ‘파멸’의 번역이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처럼 스스로 완벽한 율법을 수행하여 형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성심’의 절대화를 경계하라는 의미라면, 자신의 노력이 기대한 결과를 주지 못할 때 심리적 충격 혹은 실망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번역은 심리적 충격을 나타내는 ‘마음을 황폐하게 하다’가 더 적절하다.⁴⁷ 이것은 장자가 말한 ‘위태(危殆)’로 읽을 수 있다. ‘위태하다’라고 번역한 ‘殆(태)’는 ‘지치다’로도 새길 수 있다.⁴⁸ 그렇다면 이것은 끝없는 지식의 추구는

46 롤랜드 E. 머피, 윌글, 225; 차준희,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Vol. 17 No. 4 (2011), 65-66; Michael V. Fox, 윌글, 235.

47 드물지만 15절(a)의 מִשְׁמָוֹת (오베드) 또한 정신적인 황폐함으로 사용한 예가 있다. מִשְׁמָוֹת (아바드 레브/낙심하다, 렘 4:9).

48 안동림, 윌글, 91.

사람을 지치게 할 뿐 자신의 생명에 어떤 좋은 결과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의미함으로,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전도서의 의미와 잘 통하게 된다. 그리고 17절(b)는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단명(短命)'한다고 하였다. 이 또한 위태로운 일 아니겠는가.

이처럼 전도서 7장 16절(b)와 17절(b)는 인간의 '한계적인 앎(성심, 成心)'으로 사태를 판단한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교훈한다. 물론 전도서 속에 드러난 코헬렛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인간의 절대화'라는 행위의 결과로서의 '마음의 황폐함'과 '단명'은 현실에서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탄식이 전도서 전체에서 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고를 하는 이유는, 코헬렛이 하나님 신앙의 전통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경험하는 현실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지만, 온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믿음이 있다(전 3:1; 8:12; 11:9; 12:14). 이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앎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위태하다고 한 장자의 입장과 공명하는 것이다.

5) 하나님 경외와 연독(緣督)

전도서 7장 18절은 16절과 17절의 충고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차준희는 18절의 '(a)이것'은 '의로움'을 '(b)저것'은 '악행'을 가리키며, 이는 윤리적인 선악이 아닌 '태도'를 가리킨다 하였다. 즉, '의로움'은 '토라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악행'은 '토라에 반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다.⁴⁹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코헬렛이 토라에 합당한 삶과 동시에 그에 반하는 삶도 권고하게 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a)이것'은 16절(a)를, '(b)저것'은 17절(a)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⁵⁰

49 차준희, *읽글*, 66-67.

50 Michael V. Fox, *읽글*, 236.

코헬렛은 단락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a)이것'과 '(b)저것' 모두 손에 놓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권면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좌우지하려는 '인간의 절대화'의 태도를 지양하라는 교훈이다. 이와 같은 코헬렛의 결론은 장자의 '연독'으로 읽을 수 있다. 어떠한 가치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변화에 따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 주관적인 편견에 따라 사물과 사태를 판단하지 않고(무위, 無爲), 본래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며 그것에 머무는 것(자연, 自然,)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자신의 지혜 혹은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적당하고 바른 태도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코헬렛은 인생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살라고 조언한다.

장자는 '연독'하면 몸을 지킬 수 있고(보신, 保身),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전생, 全生), 부모를 봉양할 수 있고(양친, 養親),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된다(진년, 盡年) 하였다. 여기서 '양친(養親)'의 '친(親)'은 '신(身)'으로 새겨 '내 몸을 보양할 수 있다'로 이해할 수 있다.⁵¹ '친(親, 부모)'으로 새긴다 해도 자기의 몸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통한다 하겠다. 아무튼, '연독'의 유익은 바로 '양생'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헬렛의 교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코헬렛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전 7:11; 9:4; 11:7). 따라서 '연독'으로 전도서 7장 18절을 읽는다면,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충만한 생명에 대한 기대도 읽을 수 있다.

51 안동림, *읽글*, 92.

4. 결론

지금까지 「양생주, 1-2」의 눈으로 전도서 7장 15-18절 본문을 새롭게 해석해 보았다. 「양생주, 1-2」는 인간이 참된 인생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한계적 앎(성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독'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독'을 따른다는 것은 '도'를 따르는 상태로, 선이든 악이든 한쪽에 치우쳐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자의 교훈을 안경 삼아 전도서 7장 15-18절을 다시 읽어보니 전도서를 도가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코헬렛이 관찰한 '불합리한 현실'은 장자의 '한계 없는 앎의 현실'로, '하나님 경외'의 개념은 '연독'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전도서 본문에 동양적 개념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심'의 개념을 통해 전도서 본문을 읽을 때, 코헬렛이 '인간의 절대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연독'의 결과에 대한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전도서 전체에서 코헬렛이 강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히브리인들의 종교 경전인 성경을 도가의 개념으로 읽는 본 연구의 시도는 두 경전을 혼합하여 성경의 도교화(道敎化) 혹은 혼합 종교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는 이치창(李炅昌)이 주장한 것처럼 동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동양인의 경험으로 더욱 풍성해진 성경의 의미를 발굴해내기 위함이다.⁵² 한국인이란 누구나, 무의식 중에 혹은 아주 작은 일부라도 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도가의 관점에서 기독교 경전을 읽는 시도는, 서양 중심적 시각에서만 이루어졌던 전도서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동양인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설교의 토대를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2 李炅昌, *빛글*, 138-139.

5. 참고문헌

- 김진희, "동양사상의 우주론에 입각한 유영모의 신학", 「신학사상」 131 (2005), 161-200.
- 김흡영, "아시아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종교와 과학간의 대화: 신학, 동양종교, 자연과학의 삼중적 대화에 대한 제안", 「신학사상」 135 (2006), 125-150.
- 롤랜드 E. 머피, 「전도서」 (김귀탁 옮김), (WBC 성경주석 23A; 서울: 솔로몬, 2008). 원제 Murphy, Roland E., *Ecclesiastes* (WBC 23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2).
- H. 링그렌/W. 침멀리, 「잠언/전도서」 (박영옥 옮김), (국제성서주석 18;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원제 Ringgren, Helmer/Zimmerli, Walther, *Sprüche/Prediger* (Vandenhoeck & Ruprecht, 1980).
- 민영진, 「전도서/아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연구」 (서울: 도서출판 글터, 1997).
- 서명수, "중용의 관점에서 본 전도서의 '새로운 지혜'", 「구약논단」 19 (2013), 183-207.
- 수기르타라야, R. S. "탈식민주의적 성서 비평의 구도(원제: Plotting Postcolonial Biblical Criticism)", (김재성 옮김), 「신학사상」 95 (1996), 64-77.
- 신윤구, "孔자의 中庸思想에 대한 研究", 「동서철학연구」 33 (2004), 199-217.
- 안동림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2013).
- 오강남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2009).
- 오민수, "전도서 10장 1절 이해와 그 현대적 교훈: 위기사회와 지혜", 「구약논단」 23 (2017), 74-102.
- 윌리엄 P. 브라운, 「전도서」 (채은하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6). 원제 Brown, William P. *Ecclesiaste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이중성, “장자 철학에서 성심에 대한 성찰”, 『대동철학』 23 (2003), 1-26.

이진용, “장자의 감정과 공감의 문제-무정(無情)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6 (2015), 41-65.

이택용, “장자 소요유의 주지 및 철학사적 함의 고찰”, 『동양철학연구』 76 (2013), 41-66.

_____, “장자 철학에서 「양생주」 함의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79 (2014), 59-87.

정병석,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죽음관”, 『동양철학연구』 55 (2008), 46-77.

정병현, “장자 <양생주>의 양생사상 고찰- 포정해우에 대한 도교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2 (2015), 128-154.

정용선, 『장자, 위대한 우화』 (서울: 인간의 기쁨, 2016).

제임스 L. 크렌쇼,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원제 Crenshaw, James L.,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차준희,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17 (2011), 57-83.

Gordis, Robert, *Koheleth: 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Books, 1971).

Fox, Michael V., *Qohelet and His Contradictions* (Sheffield: Almond 1985).

李焜昌, “跨越文化边界之经典诠释”, 『圣经文学研究』 第7輯 (2013), 125-142.

검색어

전도서와 장자
 하나님 경외
 도(道)
 연둑(緣督)
 인간의 절대화
 성심(成心)

A New Interpretation of Ecclesiastes 7:15-18 in the Eyes of Zhuangzi

Ha-Na Lee

Keimyung University,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s of two similar passages in totally different texts, Ecclesiastes and 「Zhuangzi」, and then to create a new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ommon concepts found, that i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Ecclesiastes in terms of the concepts of 「Zhuangzi」. First, taking the meaning of 「Yangshengzhu, 1-2」 in 「Zhuangzi」, into consideration, a new interpretation of Ecclesiastes 7:15-18 is proceeded.

For a human being to live a true life, 「Yangshengzhu, 1-2」 warns against his/her being captivated by their ‘limitations of knowledge’ (Chengxin), and encourages him/her to live according to ‘Du’. This is in the state of following ‘Dao’, not leaning to one side, good or evil, thus not absoluteizing it, but ‘following the laws of nature’. Re-reading Ecclesiastes 7:15-18 through the lens of 「Yangshengzhu, 1-2」 in 「Zhuangzi」,

the possibility is found of expressing Ecclesiastes in the language of 「Zhuangzi」, and new interpretations are also found. The unreasonable reality in Ecclesiaste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reality of no limit’ of 「Zhuangzi」, and the concept of ‘the fear of God’, as the concept of ‘Yuandu,’ and this added an oriental concept to the text of Ecclesiastes, which gives ample meanings to it. Also, when reading the book of Ecclesiastes in terms of the concept of ‘Chengxin’, an interpretation is found that Ecclesiastes is wary of the absoluteness of humanity, and the story of 「Zhuangzi」 about the result of ‘Yuandu’ also revealed.

The attempts of this study to read the Hebrew Bible, a religious scripture of the Hebrews, in the concept of ‘Daojia’ could give a new dire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Ecclesiastes that has been carried out only in the Western perspective. So this would be the opportunity to build a new foundation for sermons which are more empathetic for Asians.

Keywords

Ecclesiastes and Zhuangzi

the fear of God

Dao

Yuandu

the absoluteness of humanity

Chengxin

- 투고일: 2020년 4월 6일
- 심사일: 2020년 5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

www.kci.go.kr